

한국 도자부터 해상 교류 유산까지... 국립광주박물관 ‘도자문화관’ 개관



청자상감
모란국화무늬
참외모양병
(국보)



신안해저 도자 전시실 전경



석조물 마당



도자문화관 전경

신안해저유물 중심 정체성 집약한 첫 도자 전문관
2층 규모...국보 포함 7천여점 문화유산 ‘한자리’
한국·중국·일본 잇는 아시아 도자문화 흐름 조망

국립광주박물관이 오랜 시간 축적해온 신안해저유물과 도자 컬렉션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도자문화관’을 열며, 한국 도자의 생산·유통과 해상 교류의 흔적을 한 공간에서 살필 수 있게 됐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최흥선)은 17일 도자문화관 개관식에 앞서 언론공개회를 열고 전시관

조성과 상설전 구성 내용을 공개했다. 도자문화관은 18일부터 관람객을 맞는다.

도자문화관은 지상 2층, 연면적 7천137㎡ 규모로 조성됐으며 한국 도자 1천년의 흐름과 14세기 신안해저 출수 도자를 중심으로 한 상설 전시 공간을 갖췄다.

이번 도자문화관 건립은 국립광주박물관 입장에서 오랜 숙원 사업으로 꼽혀왔다. 1970년대부터 신안해저유물의 수집과 전시를 이어왔음에도, 방대한 도자·해저유산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상설 전문관이 없다는 점은 지역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였다.

박물관 측은 2018년부터 ‘아시아 도자문화 교류의 거점’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도자기 중심 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 핵심 시설로 도자문화관 건립을 제시해왔다.

2021년 설계공모를 거쳐 2023년 착공에 들어간 도자문화관은 약 4년에 걸친 준비 끝에 이번엔 문을 열었다. 신안해저문화재 수집 이후 누적돼온 전시·수장 환경의 한계를 해소하고, 2010년대 후반 이후 추진된 ‘아시아 도자문화 실크로드’ 전략을 구현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도자문화관에는 국보 ‘청자 상감 모란 국화무늬 참외모양 병’을 비롯해 보물 ‘청자 귀룡모양 주자’ 등 주요 지정문화재가 포함돼 있다. 한국 도자와 신안해저 출수 도자를 합쳐 총 7천여 점에 이르는 유물을 상설로 공개한다.

먼저, 도자문화관 1층에 마련된 한국 도자 전

시실은 ‘한국 도자기, 1000년’을 주제로 구성됐다. 도자의 생산 과정에서 출발해 청자, 분청사기, 백자로 이어지는 흐름을 소비와 유통, 연구 성과까지 아우르며 입체적으로 풀어낸 점이 기존 본관 상설전시와의 가장 큰 차별점이다.

전시는 ‘천 년의 시간이 빛은 그릇’, ‘독자적 아름다움, 청자’, ‘모두의 그릇, 분청사기와 백자’ 등 3부로 구성됐다.

강진 사당리와 부안 유천리, 광주 충효동 가마 등 전라도 지역의 핵심 유적을 바탕으로 제작 기술과 장식기법의 변화를 집중 조명하고, 실물 그대로 옮겨온 강진 용운리 가마를 통해 청자의 제작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같은 층에 조성된 신안해저 도자 전시실은 ‘바다를 건너 꿈, 신안해저전’을 주제로, 14세기 동아시아 해상교류의 현장을 6천500여 점의 유물로 구성해 보여준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관람객은 한 척의 무역선에 올라탄 듯한 느낌을 받는다. 당시 배에 실렸던 물품과 도자기를 담았던 나무상자, 중국과 일본을 오갔던 무역 항로, 선사 생활용품 등을 차례로 마주하게 된다. 생산지별로 분류된 도자 진열

장은 빼곡히 들어찬 규모 자체로 압도감을 주는 동시에, 지역과 기종별 특징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디지털 아트존은 길이 60m의 초대형 파노라마 스크린을 갖춘 몰입형 미디어 전시 공간이다. 개관 기념작 ‘흙의 기억, 빛으로 피어나다’는 무등산과 화순 적벽 등 광주·전남의 자연경관을 세계질 변화 속에 담아내고, 도자의 질감과 광택을 3D 영상으로 구현했다. 상영 이후에는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콘텐츠도 마련됐다.

2층에는 뮤지엄숍과 카페, 석조물 마당 등 관람객을 위한 복합 휴게공간이 조성됐다. 특히 야외 석조물 마당에는 고 이진희 화가가 기증한 석조문화유산 41점이 설치돼 조각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카페와 세라믹 스튜디오는 현재 조성 중으로, 내년 중 순차적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최흥선 관장은 “도자문화관은 한국·중국·일본을 잇는 아시아 도자문화 교류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지역민들이 마을 편히 찾는 공간이자 전통과 현대 도자문화가 융합하는 거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장애예술인들의 국악 한마당 ‘조각보’

사람사랑 초청공연, 20일 남도국악원

국악과 판소리, 농악이 어우러진 한마당이 펼쳐진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20일 오후 3시 장애인 문화예술공동체 사람사랑 초청공연 ‘조각보 - 그것은 내가 해야제’를 선보인다.

장애인문화예술공동체 사람사랑이 준비한 이번 공연은 장애예술인들이 참여해 흥겨운 국악 공연을 펼친다.

눈이 보이지 않거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조건 속에서도 예술을 향한 마음으로 만들어낸

하모니가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공연 제목인 ‘조각보’는 서로 다른 천 조각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움을 이룬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장애와 예술 역시 다름 속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무대를 통해 풀어낸다.

부제 ‘그것은 내가 해야제’는 이 시대 최고의 명고 김정만의 말에서 따왔다.

이날 무대는 통영고성오광대 중 ‘문동춤’으로 시작해,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들이 선보이는 ‘신명의 북소리’, 아쟁 명인 김영길의 ‘아쟁산조’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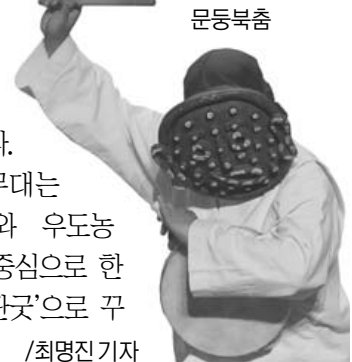
이어 영암군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 가운데 지적장애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음악난타’ 무대가 펼쳐진다.

또 시각장애를 지녔지만 소리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연주를 이어가고 있는 최예나와 명고 김정만이 함께 판

소리 심청가 중 ‘심봉사 눈 뜨는 대목’을 들려준다.

마지막 무대는 ‘진도북놀이’와 우도농악보존회를 중심으로 한 ‘함께 노는 판국’으로 꾸며진다.

/최명진 기자



문동춤

2025 송년 포럼 ‘친애하는 문화에게’

지원포럼, 오늘 메리인가든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회장 류재한)은 18일 오후 4시 북구 메리인가든(빛고를 대로 460 1층)에서 문화인 송년 포럼 ‘친애하는 문화에게’를 개최한다.

‘광주의 문화, 방향을 묻다’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올 한해를 마무리하며 시민이 중심이 되는 문화도시의 미래 전략과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광주가 가진 풍부한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도시 전역에 문화를 확산시키고, 실행력 높은 문

화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될 예정이다.

먼저 이경현 지원포럼 사무국장이 ‘2027년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 현황과 추진 경과’를 공유한다. 이어 전은옥 광주시 문화체육실장이 ‘아특별 연장 관련 국회 토론회 개최 결과 및 향후 계획’ 관련 법적 기반 확보 및 지원 체계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강신겸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시대, 광주의 문화 비전’을 주제로 미래 지향적 문화정책 방향에 대해 제안한다.

/최명진 기자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 기후·생명 회복 위한 <환경주일 묵회서신·공동기도문> 채택
- 창조질서 회복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캠페인 확산
- 기후난민공동체 지원 사업 전개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생태보존 교육 실시

CBS, (사)푸른아시아, 한국교회 15개 주요 교단, 환경부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출범’ - 2022. 4. 26

CBS
Media Group™